

# 서울시 토허제 지역 ‘집중점검’ 이틀만에 이상거래 17건 적발

### 투기세력 교란행위 차단 집중점검 투기 우려지역, 거래동향 모니터링 불법행위에 무관용 원칙 ‘엄정대응’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지난 22일까지 거래계약을 중개한 관내 중개사무소 136개소를 점검한 결과, 17건의 이상거래를 발견했다. 해당 건에 대해서는 거래당사자를 대상으로 거래신고 내용과 실제 거래내역의 부합 여부를 정밀 조사할 예정이다.

서울시가 투기 세력의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효력발생을 앞두고 주말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대상 지역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거래 가격 담합 ▲가격 띄우기 목적의 허위 거래 계약 신고 ▲허위 매물 표시·광고 등을



서울의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와 용산구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적용을 하루 앞둔 23일 서울 시내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토허제 확대 지정과 관련한 정부 자료집이 붙어 있다. /뉴스시스

집중적으로 파악했다. 이 같은 행위를 적발할 경우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을 위해 자치구와 함께 합동 점검반을 구성·운영했다.

시는 거래 과열 징후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시장 교란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이번 점검을 추진하게 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확대 지정 효력 발생 전, 단기적 거래 집중 현상이 발생

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선제적 점검을 통해 시장의 이상 움직임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해서다.

한편, 서울시는 투기 수요 유입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지속적인 거래 동향 모니터링도 병행한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으로 매도물량 감소에 따른 매매가격 상승이 예상되면서 시장의 비정상적인 흐름을 조기에 감지하고 필요 시 추가적인 대응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 서울교육청, 공공데이터 평가 ‘우수등급’

공공데이터 제공·운영 높은 성과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4년 공공데이터 제공 및 데이터기반행정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획득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총 679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데이터 품질관리, 데이터기반 정책 활용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평가가 이뤄졌다.

서울시교육청은 공공데이터 제공 및

운영 실태 평가에서 90.75점, 데이터기반행정 평가에서 94.00점을 획득하며 시도교육청 평균(88.3점, 76.1점)보다 높은 성과를 기록했다. 이 중, 공공데이터 개방 계획 수립 및 이행률, 데이터 품질 관리, 데이터 분석 과제 발굴·분석·정책 활용 실적 등 20개 지표 중 14개 지표에서 만점을 받았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공공데이터 품질 향상 및 활용 활성화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데이터 분석 역량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이현진 기자

# 건국대, 라오스에 축산기술센터 설립

현지 축산 인력 역량 강화 목표

건국대학교(총장 원종필)는 지난 20일 라오스 시엥쿠앙주에 축산기술센터를 개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축산기술센터 설립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국제개발협력 사업인 ‘베트남 축산 고등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농업대학교 역량강화 사업(이하 베트남 국립농대 사업)’과 ‘라오스 중북부지역 농촌개발사업’의 삼각 기술협력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이번 개소식에는 김수기 건국대 축산고등교육센터(KUVEC) 센터장(베

트남 국립농대 사업 책임자), 윤해진 한국개발전략연구소(KDS) 부원장(라오스 중북부 사업 책임자), 좌인 베트남 국립농업대학교(VNUA) 부학장 등이 참석해 센터의 개소를 축하했다.

신설된 축산기술센터는 한국개발전략연구소(KDS)가 수행 중인 KOICA의 ‘라오스 중북부 농촌개발사업(2021~2025년, 총 1250만 달러)’의 일환으로, 축산 연구와 실습이 가능한 인프라를 구축했다. 센터에는 행정동, 축사, 목초 저장시설, 축산 실험실, 인공수정 기자재, 목초 종자 저장시설, 농기계 보관시설 등이 조성됐다. /이현진 기자

# 의대생 돌아온다... 연고대 절반 복귀 신청

### 이번주까지 의대 복귀 마감 시한 의총협, 35개교 집단 휴학계 반려

정부가 의과대학 증원을 추진하자 이에 반발해 지난해부터 휴학을 이어가던 의대생들이 돌아오고 있다. 대학들이 미복귀 학생들을 향해 학칙대로 제적, 유급 조치를 하겠다고 압박 수위를 높인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관측된다. 대부분의 의대 복귀 마감 시한은 이번주로, 의대 교육 파행이 끝나고 정상화할지 여부가 판가름 날 전망이다.

지난 21일이 복귀 등록 기한이었던 고려대와 경북대, 연세대 의대생들 절반가량이 복귀 신청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세 대학은 전국 40개 의대

중 가장 먼저 등록을 마감했다.

연세대 의대는 6개 학년 재적생 700여명 중 300명 이상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등록을 마감한 고려대와 경북대의 의대도 연세대와 비슷한 수준으로 복학원이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와 각 대학은 복귀 의대생 규모를 비공개하기로 정했기 때문에 정확한 규모는 드러나지 않는 상황이다.

나머지 30여개 의대 복귀 마감 시한도 이번주 순차적으로 돌아온다. 대학이 정한 복귀 마감 시한은 전체 학사일정의 4분의 1을 지나는 시점으로, 다수의 의대는 학칙에 따라 출석 일수의 4분의 1 이상 수업을 듣지 않으면 F학점으로 처리한다. 한 과목이라도 F학점을 받

을 경우 유급하게 된다.

1년 넘게 휴학을 이어온 학생들이 이번 학기 등록을 시작한 것은 학사 유연화 등의 조치가 없었던 교육부 및 대학 결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의대들도 복학원을 제출하지 않는 의대생들은 학칙대로 조치할 계획이다.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지난 22일 전국 35개 의대에서 제출된 의대생 집단 휴학계를 반려했다고 밝혔다.

의대생 복귀가 다른 대학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지 결과가 주목되는 가운데, 교육부가 조건으로 내세운 ‘의대생 전원 복귀’ 가능성은 여전히 미지수다. /이현진 기자

# 고양시, 대만 포럼서 ‘순환도시’ 비전 발표

이동환 시장, ‘CityCOP’ 포럼 참석

고양시는 지난 21일 대만 가오슝에서 열린 ‘2025 가오슝 스마트시티 서밋’의 CityCOP 포럼에 참석해 ‘자원의 재고찰: 순환도시를 위한 길’을 주제로 지속가능한 도시 실현을 위한 비전을 제시했다.

‘CityCOP’은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의 주요의제를 도시 차원에서 논의하는 고위급 국제회의로, 도시 대표단과 국제기구, 산업계, 학계, 시민사회 주요 인사들이 참여하는

권위 있는 행사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고위급 세션 연설을 통해 고양시의 자원순환 정책과 디지털 기술 접목 사례를 소개하며 ‘자원은 더 이상 무한하지 않다. 생산-사용-폐기라는 선형적 구조에서 벗어나 순환을 중심으로 한 지속 가능한 도시 모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생활폐기물과 음식물 폐기물 처리시설을 운영 및 자원순환가게 운영 등 고양시의 실제 사례를 통해 순환도시 전략을 설명했다.

/고양(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 신림6구역, 990세대 ‘숲세권’ 주거단지

### 신림동 419일대, 신통기획 확정 최고 28층, 신형 주거단지 변모

삼성산 자락의 노후 저층 주거지가 최고 28층, 990여 세대의 자연으로 열린 숲세권, 초포아(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 주거단지로 거듭날 전망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으로 관악구 신림동 419 일대 ‘신림6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신속통합기획을 확

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대상지는 삼성산 자락에 위치하고 신림초등학교, 병설유치원과 접하고 있어 자연환경과 교육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바로 옆 신림5구역을 비롯하여 재정비촉진지구 등 주변 지역에서 다수의 재개발사업이 추진 중이다.

반면, 대상지 내 대부분이 노후주택이며, 경사지형에 반지하 주택 비율이 높아 안전사고 위험이 따르는 등 주거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

이에 서울시는 자치구, 주민, 전문가와 함께 한 팀을 이뤄 수차례 논의 및 계획 조정 과정과 간담회·설명회 등 주민 소통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했고 착수 7개월 만에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

이번 신속통합기획안은 용도지역상향과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으로 사업 실현성을 확보했다. 또한, 26m 이상의 경사지형을 고려해 지형에 순응하는 대지조성계획을 수립하고 단차를 활용한 주차장, 상가, 커뮤니티시설 배치로 토지 효율성을 높였다. /이현진 기자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6:30 | 해질 / 18:47

3월

24

(월)  
음력 : 2월 25일

**수도권 날씨**

11 ~ 19°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연천	7/19
동두천	9/19
가평	6/19
파주	7/17
서울	11/19
양평	9/20
용인	9/18
평택	9/21
인천	8/14
수원	9/18
백령도	7/12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 메트로 한줄뉴스



▲“트럼프 내달 2일 ‘더 표적화된’ 관세 발표할 예정”  
▲방중 트럼프 측근 정치인 “미중 정상회담 마련 위한 첫 단계” /사진 뉴스시스

▲주 불가리아 북한 대사, 1년 만에 부임...활동 시작  
▲‘美 서부 여행’ 한국인 여성 관광객 3명 실종 상태

▲프랑스 정부, 레바논 남부의 이군 폭격 등 전황 악화에 “우려”  
▲러, 드론 12대로 자포리자 공격...트럼프發 협상 무색